

# 현대차 캐스퍼, 경차 시장 다크호스 급부상

### 얼리버드 예약하루만 1만8,940대 사전 계약

### 경제성·디자인·안전성·공간성 등 흥행몰이

현대자동차의 경형 SUV 캐스퍼(사진)가 사전 예약 하루 만에 경차 시장 1위인 기아 레이의 올해 누적 판매량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등 크게 흥행하고 있다.

22일 현대차에 따르면 온라인 얼리버드 예약 첫날 캐스퍼의 계약 대수는 1만 8,940대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국내 경차 3종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레이의 1~8월 누적 판매량 2만 3,657대의 80.1%에 달하는 수치다.

캐스퍼는 국내에 출시된 경차 중 첫 SUV 모델이다. 배기량 1000cc에 전장 3,595mm, 전폭 1,595mm, 전고 1,575mm 등의 외형을 자랑한다.

캐스퍼가 사전 예약 하루 만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자 업계는 국내 경차 시장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캐스퍼가 등장했다며 높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국내 경차 시장은 날로 고급화·대형화되는 자동차 트렌드에 따라 지난해 10만



대도 판매하지 못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캐스퍼에 탑재된 각종 첨단 기술은 기존의 경차 모델을 압도한다. 전 트립에 지능형 안전기술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차량·보행자·자전거) ▲차로 이탈 방지 보조(LKA) ▲차로 유지 보조

(LFA) ▲운전자 주의 경고(DAW) ▲하이빔 보조(HBA) ▲전방 차량 출발 알람 등이 기본 적용됐다.

또 상위 트림에서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 ▲후방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된 현대스마트센스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터보 모델도 강점이다. 가솔린 1.0 터보 엔진이 장착된 '캐스퍼 액티브'는 100마력, 최대토크 17.5kg·f·m, 복합연비 12.8km/l 등으로 기존 경차에서 느껴보지 못한 주행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차박 등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됐다 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캐스퍼는 1·2월

전 좌석에 폴딩·슬라이딩·리클라이닝 기술을 적용했다. 운전석 시트에는 세계 최초로 앞으로 완전히 접히는 폴딩 시트가 탑재됐다.

또 각 시트별로 폴딩이 가능해 후석 시트를 전방으로 슬라이딩할 경우 최대 2,059mm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캐스퍼가 얼리버드 예약 첫날부터 고객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에 더해 디자인, 안전성, 공간성까지 갖춘 다채로운 상품성 때문이다"며 "국내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진행된 고객 직접 판매 방식으로 구매 편의성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서미애 기자



### SKC,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확장

SKC는 쿠웨이트 최대 석유화학 기업 PIC와 협력해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을 쿠웨이트로 확장한다고 22일 밝혔다.

SKC와 PIC, 양사의 화학사업 합작사인 SK피아이씨글로벌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쿠웨이트 내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사는 SKC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분해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역량을 쿠웨이트에 적용하기 위해 상업화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장성 검토 후 합작 사업이나 기술 수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PIC는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KPC)의 100% 자회사로 친환경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관심이 많다.

## “원자재가 상승에도 상승분 반영 안돼”

### 중기 납품단가 조사...승강기·가구 등 애로 극심

중소기업이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컸던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사 647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96.9%의 중소기업이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올해 공급원가의 평균 상승률은 2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조합원사의 45.8%가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을 전혀 반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반영됐다는 응답은 47.9%, 전부 반영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6.2%에 그쳤다. 일부 반영한 경우의 공

급원가 상승분 대비 납품대금 반영 수준은 평균 31.4%를 기록했다.

납품대금에 비용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단가 인상 요청 어려움'이 54.7%로 가장 높았으며, '거래단절 등 불이익 우려'가 22.8%로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특히 건설 관련 위탁기업(원사업자)과 거래 관계에 있는 승강기, 레미콘, 가구 업종의 경우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82.6%, 59.9%, 50.0%로 높게 나타나는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 애로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78.5%, 보통이다 17.2%,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9%를 기록했다. /오지현 기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운동화 구경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 스포츠 전문 매장 뉴발란스에서 직원이 올해 첫 선을 보인 327뉴컬러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 삼전, 미국 '소비자 충성도' 14위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실시된 '소비자 충성도' 조사에서 올해 14위로 평가되면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삼성전자는 2019년 스마트폰 부문에서 애플을 제치고 3위에 오른 바 있으나, 2년 새 타 브랜드들에 밀려 11계단이나 하락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 전문 시장조사업체 '브랜드키즈'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고객 충성도 기업 순위(Brand Keys Loyalty Leaders 2021)'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문은 14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2018년 6위에서 2019년 3위로까지 약진했으나 지난해 10위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톱10' 안에 들지 못했다. 아마존 온라인 소매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위였던 애플 스마트폰은 올해 2위로 순위가 상승해 삼성 스마트폰과 대조를 이뤘다.

### 현대차, 인명구조 모빌리티 개발

현대차그룹이 수소연료전지와 로보틱스 등을 통해 사람을 구하는 '레스큐' 모빌리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달 7일 열린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와 8~11일 열린 수소모빌리티+쇼에서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에 비행 드론과 소방용 방수총이 결합된 무인 모빌리티 '레스큐 드론'을 선보였다.

레스큐 드론은 비행 드론을 띄워 재난 현장을 촬영하면서 방수총을 가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신개념 모빌리티로, 원격주행과 자율주행이 모두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제자리에서 뜰거나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크랩 워크'도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며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450~500km로 개발 중이다.

### 주가 출렁이자 매입 나선 네이버 임원들

최근 플랫폼 규제 압박에 주가가 출렁이자 네이버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 눈길을 끈다. 카카오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상대적으로 규제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네이버 구성원들의 자신감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0~14일 네이버 임원 6명이 자사주 총 252주를 매입했다. 취득 단가는 39만7,500원~41만1,500원이다.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시점은 정부·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촉발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시점이다.

지난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토론회를 개최해 본격 규제를 예고한 이튿날부터 2일간 네이버 주가는 10.24% 떨어졌다. 그러나 네이버 안팎에서는 나뉘는 목소리가 과다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최근 네이버 주가는 반등과 조정을 거듭하며 17일 증가 기준으로 7일 대비 10% 남짓 내린 40만원선을 지켜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카카오의 주가는 계속 흘러내려 하락 폭은 20%를 넘었다. 최근 하락 기간 카카오에서 자사주 매입을 신고한 임원이 없다.

### 60세 이상 1년 전 보다 4배 증가

지난달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등 취업 준비를 한 사람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30대 '취준생'은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8월 취업준비자는 87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3,000명(6.4%)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조사가 가능한 2003년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48만9,000명, 여성이 38만5,000명으로 남성의 비중(55.9%)이 조금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7만9,000명으로 1년 전(15만3,000명)보다 2만6,000명(16.9%) 증가했다.

20대는 58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00명(0.9%) 증가하며 전체 취업준비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40대(5만6,000명)가 1만1,000명(23.2%), 50대(2만5,000명)가 3,000명(14.0%) 증가했다.

60세 이상(1만8,000명) 취업준비자는 1년 전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었으나 전체 취업준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취업준비자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는 등 현재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들은 실업자(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 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처럼 직접 구직활동을 하진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구직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 8월 취업준비자 87만4,000명 역대 최대

#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 [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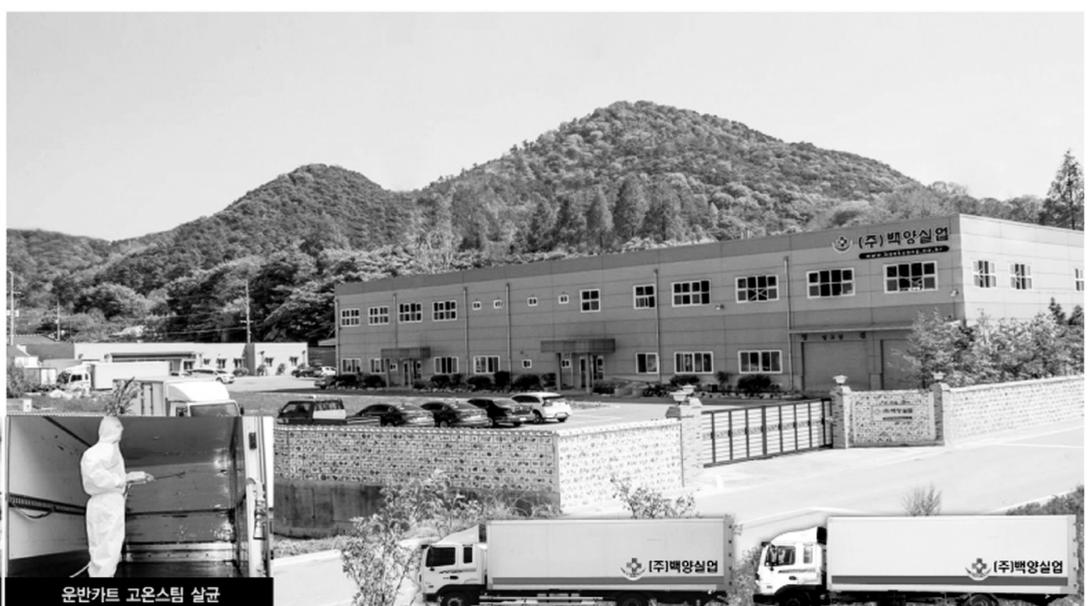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